

나주교육청, 관내 유관기관 합동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동학대 예방 홍보 '나주품' 사랑도담도담 실시

나주시청·나주경찰서·아동보호기관 등 참여

나주교육지원청은 19일 나주시청 앞, 남평읍, 성북동, 빛가람동에서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나주품' 사랑도담도담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나주교육지원청, 나주시청, 나주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였

다. 이번 캠페인은 국제 인도주의기구인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에서 2000년 11월 19일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여 1주일을 예방주간으로 명시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고 있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범주부터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등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을 홍보하여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다짐과 동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취지도 반영되었다.

캠페인에 참석한 나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아동보호팀 나OO 팀장은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위기 학생 발생 시 유관기관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시청·학교·경찰·지역사회 유관단체 등이 파트너십을 구축해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윤자 교육장은 "지역사회 아동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아동학대를 근절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민주시민생활교육의 기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아동학대는 시설 및 기관의 업무담당자만이 관계자가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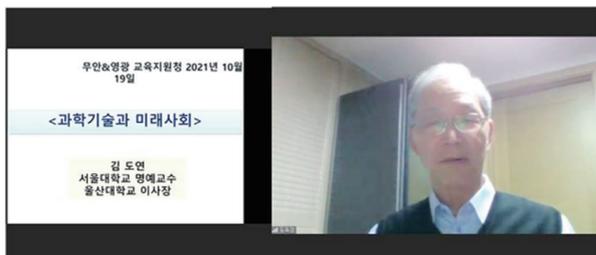


19일에도 아동학대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2021년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2021년

19일에도 아동학대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무안교육청, '창의융합 온라인 캠프' 개최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은 '창의융합 온라인 캠프'를 지난 19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창의융합 온라인 캠프(이하 온라인

중학생 50명 참석

캠프)는 무안교육지원청과 영광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총 5회에 걸쳐서 진행된다. 이날 캠프에는 무안과 영광 지역 중학생 50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온라인 캠프는 "창의융합적 사고와 청소년의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석학들을 초청하여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된다.

무안=이기성기자

장흥교육청, 가족과 함께하는 '바닷가 환경 정화 활동' 전개



장흥교육지원청 학부모회에서는 16일 명덕초등학교 앞 해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바닷가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30여 가정과 환경보호

장흥 학부모회 연합회와 권역별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계획하고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30여 가정 이상의 많은 가족이 함께 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느끼게 해주는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

전날부터 비가 내려 행사 진행에 걱정이 많았으나 활동 시작에 잠시 비가 그쳐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

닷가의 페비닐, 페밧줄 등의 많은 쓰레기를 보고 놀랐지만 모두의 손길이 닿아 깨끗해져 가는 해변을 보았고, 모래에 깊게 파묻혀 혼자서는 끌어내기 힘든 쓰레기를 친구들과 힘을 모아 처리하는 모습을 통해 '함께'의 의미를 느꼈다.

장흥초 이OO 학생은 "저는 보물 찾기를 좋아하는데, 힘은 들지만 쓰레기를 찾는 게 보물찾기처럼 재미있다. 제가 보물을 모으는 만큼 바닷가가 깨끗해져서 기분 좋다."라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광주서부교육청, 특강 '현대인의 모멸감에 대하여' 개최

관내 유·초·중·고 교원 50명 대상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20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관내 유·초·중·고 교원 50명을 대상으로 특강 '현대인의 모멸감에 대하여'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2021 학교로 찾아가는 교원 마음돌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교직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

을 위해 오는 11월26일까지 서부관내 45개교의 교원 570여 명을 대상으로 '2021 학교로 찾아가는 교원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특강 강사로 도서 '모멸감'의 저자이기도 한 성공회대 김찬호 교수를 초청했다. 김 교수는 특강에서 "감정"을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문화적 맥

락으로 접근하며 '모멸감'을 조망했다. 또 '모멸감' 극복 및 스스로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피고,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특강에 참여한 한 교원은 "이번 특강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마음을 위로 받을 수 있었고, 특강과 '교원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양다압초, 섬진강 아이들의 특별한 소풍이야기

특별한 소풍 통한 현장체험

광양다압초등학교는 19일 여수 아쿠아플레이 및 유월드로 '특별한 소풍'을 떠났다. 이번 '특별한 소풍'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모한 사업으로 올해 다압초 외 여러 학교들이 선정되었다.

최근까지 농산촌 벽지학교인 다압초는 아이들에게 지역의 문화, 레저 시설을 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야외 현장 체험활동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동안의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스스로 철저한 방역수칙 지킬 수 있었음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희망 장소로 꼽히는 아쿠아리움과 놀이공원을 선정해 친구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며 신



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광양=심종섭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